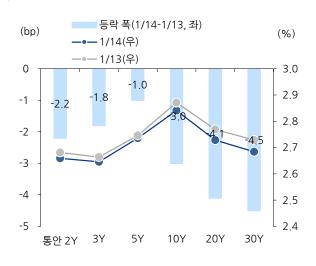
# **Eugene's FICC Update**





F	ixe	d Income			(단위	: %,bp, 틱)		
			1/14일	1D	1W	YTD		
		한국 국고채 3년물	2.646%	-1.8	13.8	5.0		
	<b>-</b>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41%	-3.0	4.7	-1.4		
	국내 채권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9.5	20.7	28.6	25.9		
	WE2	3년 국채 선물(KTB)	106.63	8.0	-22.0	-2.0		
		10년 국채선물(LKTB)	117.23	34.0	-61.0	31.0		
		미국채 2년물	4.368%	-1.3	7.5	12.9		
	-1101	미국채 10년물	4.793%	1.3	10.7	20.8		
	해외 채권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42.5	39.9	39.3	34.6		
		독일국채 10년물	2.627%	3.7	14.6	26.3		
		호주국채 10년물	4.615%	-2.1	13.7	24.7		

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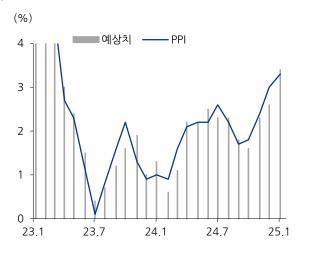
#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전일 약세를 장기물 중심 되돌리는 모습. 장 중 원달러 환율 안정, 양호한 국고채 5년물 입찰로 강세 흐름이 뒷받침되었음
- 이외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 하락, 외국인 3년 국채 선물 매수 등으로 금리 낙폭을 확대. 대신 장 후반 미 CPI, 금통위 앞둔 경계 속 강세폭 일부 반납
- 정치권 추경 발언 이어졌으나 기존 입장 반복으로 시장 영향 미미. 여당, 예산 조기 집행 후 경제항황 검토하며 점진적 추경 논의할 것을 주장하나 야당은 과감한 규모 추경 편성 고집

#### 미국 생산자물가지수



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예상 밖 PPI 둔화로 인플레 재발 우려가 완화되는 듯했으나 훈풍이 크지는 않았음. 세부항목 중 PCE 산출에 반영되는 항공요금서비스가 급등한 까닭
- 이후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한 상황. 장 중 장기금리 중심 반등하였으며, 30년 금리는 12월 고용 호조 이후 재차 5%를 웃돌기도 하였음
- 금리선물시장은 5월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 유지할 가 능성을 66.2% 반영 중
- 금일 미 12월 CPI, 중국 4Q GDP,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)								
		1/14일	1D	1W	YTD			
	원/달러	1,463.20	-0.5%	0.7%	-0.6%			
	달러지수	109.24	-0.6%	0.5%	0.7%			
	달러/유로	1.030	0.8%	-0.4%	-0.5%			
환율	위안/달러(역외)	7.35	-0.1%	0.1%	0.1%			
	엔/달러	157.98	0.2%	0.1%	0.6%			
	달러/파운드	1,221	0.2%	-2.2%	-2.5%			
	헤알/달러	6.06	-0.7%	-0.8%	-2.1%			
	WTI 근월물(\$)	78.09	-0.9%	5.2%	8.9%			
상품	금 현물(\$)	2,676.55	0.5%	1.0%	2.0%			
	구리 3개월물(\$)	9,164.00	0.8%	1.8%	4.5%			

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##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7.60원 하락한 1,463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2.0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뉴욕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 영향을 우려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등장하면서 달러는 빠르게 반락.
- 달러-원도 1,465원대에서 하락 출발 후 오전 중반부터 하락 압력 확대. 외국인들의 달러 매도세와 연금 환혜 지 경계감 작용. 오전 중 BOJ 부총재가 다음주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엔화도 낙폭을 축소.

#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PPI 예상치 하회에 하락.
- 전일 뉴욕주식시장 마감 이후 등장한 단계적 관세 고려 보도에 PPI 마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 는 일부 진정. 12월 PPI는 +0.2%(M) 상승해 시장 예상 치(+0.3%) 하회. Core PPI도 +0.1%(M) 상승에 그쳤 음. 그러나 PCE 물가에 연동되는 항공 요금이 큰 폭 상 승하는 등 완벽한 지표는 아니었음.
- 캔자스 연은 총재는 향후 점진적인 통화정책 조정을 지지하며,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.
- 12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105.1로 상승해 2018 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.
- 국제유가는 하마스-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 는 소식에 반락.